

하나금융 누적순익 3.2조... “3년내 주주환원율 50% 달성”

(1~9월)

3분기 1조1366억 당기순익 달성
이자이익 줄고 비이자이익은 늘어
퇴직연금 운용수수료 확대 등 영향

3분기 주당 배당금 600원 결의
1500억 규모 자사주 추가매입·소각

하나금융그룹이 3분기에 1조1366억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누적(1~9월) 순이익은 3조2254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하나금융은 단계적 주주환원 확대를 오는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29일 실적발표를 통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156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이자이익이 감소했지만 비이자이익이 증가하면서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올 3분기 이자이익을 살펴보면 6조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전경

/하나금융그룹

5774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8% 감소했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순이자마진(NIM)이 줄어든 영향이다. 3분기 누적 비이자이익은 1조8049억원으로 같은기

간 6.4%(1085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수수료이익은 1조54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1650억원) 증가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투자은행(IB) 부문의 수수료가 증가하고, 퇴직연금 운용 관리 수수료가 확대된 영향”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도 늘어나는 등 그룹의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이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정이자여신(NPL) 비율과 연체율은 3분기 말 각각 0.62%, 0.55%를 기록했다. 각각 전 분기보다 0.05%포인트(p), 0.06%p 올랐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업 및 가계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손비용률은 0.25%로 전년 동기 대비 0.17%p 하락했다. 주요 경영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62%, 총자산이익률(ROA)은 0.71%로 집계됐다.

이날 하나금융은 그룹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환원율 ▲보통주자본비용(CET1) ▲자기자본이익률(ROE) 밸류업을 3대 핵심지표로 선정하고, 구체적 목표와 실질적 이행

방안을 명시했다.

우선 자사주 매입확대, 분기별 균등 배당 도입 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을 50%까지 달성한다.

또 자본관리 정책 개선을 통해 CET1을 13.0~13.5%로 관리, 구간 내 일관된 주주환원을 이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안정적인 CET1 유지를 위해 위험가중 자산(RWA) 성장률 목표를 명목 국내 총생산(GDP) 수준으로 제시해 자본관리 및 주주환원 정책을 한층 더 구체화했다.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을 통해 자기자본이익률은 10%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이날 하나금융 이사회는 3분기 주당 배당금을 600원으로 결의했다.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는 추가 매입·소각한다. 연간 매입·소각규모는 3분기까지 매입·소각한 3000억원을 포함해 연간 총 4500억원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경기불황 반사이익?... 여전업계, 할부 수익 대박

8개업체 할부카드 수수료 1.7조
고금리에 무이자 할부 혜택 줄여
캐피탈, 후 할부금융 수익 역대급

불황 여파로 여전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할부로 벌어들인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가 무이자할부 혜택을 축소하고 일시불결제에 부담을 가진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할부금융(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 판매 부진에도 역대급 할부 이익을 거뒀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용카드가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할부카드수수료는 1조7037억원이다. 전년 동기(1조5326억원) 대비 11.2%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신용카드사의 할부수수료 수익은 1000억원 안팎으로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연간 4000억원 넘게 늘었다.

수수료 이익 반등 배경에는 카드사의

무이자할부 혜택 축소 때문이다. 지난해 고금리 여파에 여전채(AA+/3년물) 금리가 오르면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했던 무이자할부 혜택을 2~3개월로 대폭 줄였다. 최근 일부 카드사를 중심으로 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이 부활하고 있지만 지난해의 양상이 올 상반기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경기 환파에 수수료를 내더라도 할부에 의존한 소비자도 증가했다. 여전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 8곳의 개인신용카드 할부 누적잔액은 지난 8월 기준 55조3980억원이다. 전년 동기(50조9561억원) 대비 8.71% 증가했다. 신용카드 할부 금리는 기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최소 연 6%에서 법정최고금리(연 20%) 근처(연 19.9%)까지 부과한다. 할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진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조달비용이 높아지면서 할부 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 상황에 대응한 것”이

라며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면서 무이자할부 혜택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캐피탈사 또한 불황에 반사이익을 누렸다. 자동차할부금융수익이 급증하면서 올 상반기 캐피탈사 25곳의 자동차할부금융 수익은 7825억원 규모다. 전년 동기(6282억원) 대비 24.6% 증가했다. 지난 2019~2022년 캐피탈사의 자동차할부금융 수익은 등락을 반복했지만 지난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증가세다.

반면 차량 구매자는 감소했다. 올 상반기 국내 완성차 5곳의 내수 판매량은 67만373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1.7% 줄었다. 지난 2010년부터 상반기 완성차 판매량이 70만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2년과 2013년, 2022년과 올해 단 4번 뿐이다. 고금리 이자와 함께 현금으로 차를 사기 어려운 고객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차량 단가가 높아진 것 또한 자동차할부금융수익 증가 요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산 승용차의 평균 가격은 3046만원이다. ▲2021년(3277만원) ▲2022년(3511만원)에도 꾸준히 상승했다. 카플레이션(자동차 가격 상승 현상)과 고금리 기조에 소비자 부담이 커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인구감소가 가속화할수록 관련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 의견이 나온다. 입문용 차량 구매자는 줄어드는 반면 주요 소비층으로 분류되는 중년층의 경우 차량 등급을 높이는 등의 구매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신차가격 인상과 고금리 여파에 자동차할부수익이 확대됐다”며 “고객들의 차량 구매 유행도 변하고 있다. 과거 중형급을 타던 소비자층이 대형차를 선호하는 현상이나 타났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하나금융그룹 청년도약멤버십 3년 연속 ‘우수’

하나금융그룹은 ‘청년도약멤버십 컨퍼런스’에서 우수 청년고용 ESG 프로그램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우수활동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도약멤버십’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수한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청년 친화적 ESG 활동을 확산하려는 민관협력 프로젝트이다.

하나금융은 2022년부터 진행해 온 ‘하나 소셜벤처유니버시티’ 프로그램이 지역 청년 상생기업 분야에서 우수활동기업으로 선정돼 현판을 수여받았다.

하나 소셜벤처유니버시티는 지역의 거점 대학과 연계해 창업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특화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가치창출 프로그램이다.

하나 소셜벤처유니버시티 프로그램은 2022년도에 5개 권역 10개 대학교와 시작해 2023년부터는 전국 30개 대학교로 확대했다. 현재까지 3550명의 예비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 실무 교육을 수료했으며, 이중 221팀이 창업에 성공해 지역사회에 자리 잡았다.

한편, 하나금융은 사회혁신기업과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을 연결하는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하나 디지털 파워온 프로젝트’, 자립 준비 청년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년 세대들과의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나유리 기자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 내달 분양

GS건설, 전용 59~125㎡ 797가구
불당지구-아산탕정2 중심축 자리

GS건설은 다음달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일원에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는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내 첫 공급이다. 구역 내 3개(A1·A2·A3) 블록 총 367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11월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를 시작으로 순차 분양에 들어간다.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는 지하 2층~지상 35층, 6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59㎡A 102가구 ▲59㎡B 34가구 ▲84㎡A 466가구 ▲84㎡B 95가구 ▲84㎡C 65가구 ▲84㎡D 30가구 ▲125㎡P A 3가구 ▲125㎡PB 2가구 등 총 797가구이다.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는 전안을 대표하는 불당지구와 중부권 최대도시개발사업으로 예정된 아산탕정2를 잇는 중심축에 자리하고 있다.

불당지구는 학원가, 다양한 편의시설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아산탕정2는 약 4만 5000명 수용하는 규모로 조성되며, 2025년 착공에 이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 향후 사업지와 불당지구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A1블록) 조감도.

/GS건설

가 고가로 연결될 예정이다.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는 채광과 통풍을 고려한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다.

일부 세대에 4베이, 3면발코니 평면 구조 적용으로 공간감과 일조량을 극대

화했으며, 팬트리, 드레스룸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한편, 건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불당119 안전센터 부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입주는 2027년 하반기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